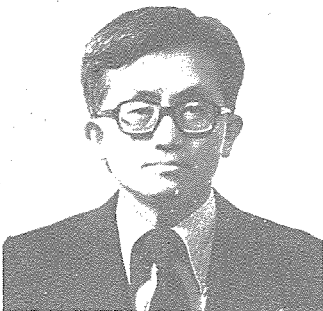


中国에서의 進化論

梁啓超의 경우를 중심으로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教授〉

다윈이 생물학에서의 진화론을 완성하기 훨씬 전부터 西洋에서는 인간사회의 進化에 대한 믿음이 오랫동안 자라고 있었다. 17세기 이래 西歐社會의 급격한 변화는 바로 이런 진화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사회의 변화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고도 할 수가 있다.

다윈의 生物進化론 자체도 이런 분위기속에서 Erasmus Darwin이나 Lamarck 등의 부분적 공헌에 힘입어 완성된 이론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다윈의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知的환경을 우리는 進歩史觀으로 부를 수도 있다.

Voltaire, Condorcet, Buckle 등을 잇는 18세기의 啓蒙思想家이며 歷史家들은 모두가 인간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보사관이 中国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보다 강한 전통을 이룬 中国의 歷史觀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堯舜의 理想的인 시대, 또는 이상적이었던 三代 이후 날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의식뿐이었다. 荀子나 公羊學派처럼 또는 王安石 같은 소위 “異端” 유학자에 의해 간혹 進歩史觀 비슷한 생각이 표현된 일도 있고, 孟子조차 歷史란 순환을 거듭한다는 표현을 쓴 일은 있으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의 결과, 開國을 당하면서부터 中國人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과거 250여년간 中国에 와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과학기술이 우수한 줄로 알았으나 西洋의 문물, 제도일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으체였다. 단지 무기등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西洋의 우수성이 눈에 띄자 中國의 지식인들은 이를 배울 수 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改革의 철학으로 제시된 대담적인 發展史觀은 康有為의 立教改制운동으로 나타났다. 「春秋公羊傳」의 해석에 따라 그는 인류의 역사는 據亂世→升平世→太平世의 세단계(三世)를 거쳐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孔子改制考」에서 이

3 단계 역사발전론이 바로 孔子의 주장이었다고 내세운 康有為는「大同書」를 써서 앞으로 다가올 太平世에서의 인류大同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다.

그는 孔子를 사회개혁 운동자로 재해석하고 자기자신을 孔子가 이미 예측하고 있던 3천년 뒤의 예언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비록 표면상 그의 發展史觀이 孔子, 즉 中國의 전통에 뿌리를 둔 주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西洋文物의 영향도 큰 것이었다. 그는 짐짓 中國 전통과의 연계성을 강조 했을 뿐이다.

梁啓超(1873-1929)는 바로 康有為의 수제자였고 그와 함께 戊戌變法운동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日本에 망명했다. 1898년 9월의 일이었다. 25세의 청년 梁啓超는 1년쯤 뒤에는 日語를 대강 읽을수있게 되었고 이때쯤 부터 그의 사상은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1902년에 그 자신이 회고하고 있다. 1902년 그가「新民叢報」를 격주로 발행한것은 그의 사상전환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1902년 1월 1일부터 이 잡지를 통해「新民說」을 연재하여 歷史를 社會進化說(Social Darwinism)로 해석하고 이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新民」하는 길밖에 없음을 왜치기 시작했다. 이때 전후 거의 10년은 梁啓超의 영향이 中國의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때였다. 胡適과 毛沢東이 모두 1902년 전후의 그를 얼마나 존경했던가를 회고 하고 있다.

梁啓超의 進化論에 대한 관심은 이보다 몇년 을 거슬러 올라간다. 中國에 진화론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96년 嚴復이 Huxley의「Evolution & Ethics」를 번역한 뒤부터였다. 이 글은 1897년 잡지에 연재되고 이듬해엔「天演論」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어 중국 지식층을 사로잡게 되었다.

梁啓超는 이것이 발달되기 전인 1896년에 이미 원고상태에서 이것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당장에는 영향이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었다. 1897년에 쓴 그의 글에서 梁啓

超는 스승 康有為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進化論과 仁의 사상을 덧붙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적고 있다.

1899년 전반까지만해도 梁啓超는 中國의 장래를 상당히 밝게 내다보면서, 이 세상은 생존경쟁의 세계이지만 中國人은 오랜 自治와 獨立전통 그리고 높은 학문과 인구 및 자원등을 갖고 있어 希望的임을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白人은 자만하여 일하지 않으려 하고 黑人은 게으르고 지능이 모자라 오직 黃人만이 앞으로의 世界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南美와 아프리카는 머지않아 황인종의 植民地가 되리라고 그는 예언까지 했다.

또 1899년의 다른 글에서 그는 歷史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진시황,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등의 개인적 야망이나 원한같은 것이 아니라 國民사이의 투쟁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國家란 國民의 것이지만 中國에는「國民」이란 생각은 없었다고 개탄하면서 일종의 民族主義의인 생각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民族主義는 漢族만을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梁啓超는 1898년 日本에 亡命하여 日語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 1899년에는「支那와 日本은 언젠가 合邦될 것이므로 서로 말을 통해들 필요가 있다」면서두나라의 志士들이 서로의 말을 배워들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日本式 이름을 갖게된 것은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으며 그의 이름 吉田晋은 吉田松蔭에서 딴 것이었다.

1899년 11월 하와이로 간 梁啓超는 이듬해 7월 上海에 들렀다가 다시 외국을 여행하고 1901년 4월 日本으로 돌아 왔다. 그는 이 海外 여행을 통해 안목을 전세계로 넓히고 동시에 世界史와 그속에서의 中國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것 같다. 그의 歷史觀은 Social Darwinism의 노골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歷史와 人種의 關係」에서 그는 그의 스승 康有為가 내세운 大同과 太平의 시대를 불가능한 理想으로 판정 내리고 그 나름의 歷史觀을 대신 내세우고 있다. 그에 따르면 世界史는 人種사이의 투쟁

인데 현재 자격이 있는 人種은 黃種과 白種 들 뿐 이라는 것이다.

여러나라는 世界主義에서 민족주의로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民族帝國主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梁啓超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民族이 자기세력을 밖으로 넓혀가는것을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는 영어로 National imperialism 이란 설명까지 붙여있다.

그리고 이런 19세기 최대의 사상적轉換을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다윈 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다윈 이전에는 학자들은 인간에게 天賦의 權利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윈에 의해 생존경쟁(物競) 자연선택(天擇)優勝劣敗의 원리를 발명한 이래 세상에는 오직 強者만의 權利(強權)가 있을뿐 平權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權이란 사람이 스스로 구하여 얻을것이지 하늘이 주는것(天賦)이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梁啓超는 말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것은 東京帝大총장 加藤弘之의 진화론 著作을 보고 부터였다. 1900년 이후 그의 다윈니즘의인 사회사상은 주로 日本에서의 독서결과로 얻은 것들이었고 이 흡수과정은 자기자신도 인정한 것처럼“梁啓超式”이어서 조직도 없고, 선택도 없고 本末도 派別도 분명치 않게 마구잡이로 西洋사상을 受容한 것이었다.

梁啓超의 Darwinism受容이“梁啓超式”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救國의 길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優勝劣敗의 世界에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이 새로와지는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각성이 1902년 1월부터 그가 出刊하기 시작한「新民叢報」에 연재한“新民說”이다. 이 글의 시작에서 그는 세상의 1백10여개국 가운데 앞으로 생존경쟁에 살아남을 나라는 4~5 개 뿐일 것이라면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中國인의 정신적 부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歷史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西洋에 있는 학문분야는 거의다 中國에 는 생소한 분야인데, 오직 史學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民族主義가 발달하고 文明이 나아간 이면에는 史學의 공헌이 半은 된다고 생각했다.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新民”해야하고, 또 이를 위하여는 史學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史學이 아닌 새로운 史學을 일으킴으로써만 中國을 救할수 있다고 梁啓超는 단언했다.

그는 中國의 傳統史學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네가지로 지적하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두가지 병폐를 들어, 이들을 고쳐야만 中國의 史學이 제몫을 할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는 中國의 史學은 腹延만 있고 國家가 없으며, 個人만 있고 社會가 없으며, 옛 기록은 있으나 오늘날의 관련성은 없으며 사실만 있지 歷史意識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中國에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史家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歷史란 인류 社會의 進化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노력이라는 것이 進化論者 梁啓超의 歷史觀이었다.

Spencer를 높이 치켜올린 梁啓超는 1894년 「Social Evolution」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Benjamin Kidd에도 관심을 가져, 利己心이란 가장 非社會的이고 또 가장 進化的이라 매도하면서 中國의 進化를 위해서는 保人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스위스의 政治學者 Johann Bluntschli(1808-1881)를 “20세기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루스가 19세기 민주주의의“어머니”였던 것처럼, Bluntschli는 20세기를 지배하는 國家主義의 주창자라는 것이었다.

19세기가 國家가 人民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였다면 20세기는 人民이 國家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國家를 투쟁의 단위로 보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또 이 투쟁에서 內的인 結束을 확실히하기 위해서는 Mazzini의 이탈리아나 明治시대의 日本 같이 宗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다.

그는 바로 이 內的인 團結에서 실패하여 망하게된 것이 朝鮮이라고 1910년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말한 일도 있다. 그는 朝鮮은 全世界에서

個人主義가 제일 극성한 나라이며, 이 때문에 모든 朝鮮人은 자기 자기 이익을 좇아 中國黨, 日本黨, 俄黨으로 바뀌어가다가 나라를 망친것이라고 朝鮮滅亡之原因”을 보았다.

梁啓超가 크게 활약하던 1900-1905년 사이 中國의 모든 지식인들은 Social Darwinism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胡適(1891~1962)이 원래의 이름 胡洪驛을 집어던지고 이 세상에서 “適”者가 되겠다고 이름을 바꾼것도 이때였고 毛澤東은 梁啓超의 「新民叢報」를 읽고 또 읽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투쟁을 통한 進歩라는 역사 해석은 1900년이후 中國지식층의 사고방식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그 뿌리가 바로 다윈에 있었던 것이다.

梁啓超의 西洋에 대한 믿음은 1919년 유럽여행으로 끝장이 났다. 그는 더이상 서양과 그것을 받쳐주는 科學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의 역사가 투쟁을 통해 進歩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毛澤東같은 청년들은 이미 그의 생각을 저버리고 陳獨秀의 「新青年」을 읽고 있었고 급진적인 革命을 원하고 있었다.

다윈에서 시작한 毛澤東은 맑스와 엔겔스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었으나, 康有為에서 출발한 梁啓超에게는 오히려 인류의 진보가 어떤 至善極美의 상태에 도달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질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만약 프롤레타리아가 政權을 잡는다면 그들이 다시 지배계급으로서 횡포할 것이므로 歷史는 끊임없는 갈등

과 투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末年의 梁啓超는 영원한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길은 宗教的인 超越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위니즘이 1900년 이후의 中國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것이 강력한 進歩史觀을 中國지식층에게 심어주었다는 사실이다. 梁啓超는 그중 가장 처음 또 제일 대표적인 다위니즘 수용자였다.

그는 그뒤平生을 Darwinist로 머물렀으나, 처음에는 민족과 민족의 투쟁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아 新民을 통한 中國의 復活을 부르짖었고 그후에는 점점 革命的 變化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뒤에는 소극적인 社會改革論者가 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에게서 다위니즘을 受容한 毛澤東은 투쟁의 제일 중요한 單位는 國家間 및 階級間이라면서 두가지의 투쟁을 동시에 추진하여 혁명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의 결과만 보면 毛는 옳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증명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事實이라기 보다는 그의 時代가 얼마나 다위니즘이 판을 치던 時代였던가를 보여주는것 뿐이다.

다윈의 영향으로, 그리고 毛澤東의 成功으로 인하여 東아세아에는 급진적인 進歩史觀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我們 時代의 難治病이라고 생각한다.

良心的인 個人

깨끗한 政府

道德的인 社會